

# 광주시 “공개 토론하자”...시민단체 “못할 이유 없다”

###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계획 변경 과정 특혜 시비 市, 이례적으로 토론회 제안...시민단체 등 참여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일고 있는 특혜 논란과 관련해 광주시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시 측은 이 같은 대응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특례사업 계획 변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업 계획 변경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남주 시 환경생태국장은 17일 “시민

단체와 언론,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사업 계획 변경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번 주초 시민단체와 연락해 공개토론회 방식과 시기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15일 입장문을 내고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민·관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가장 낮은 비용시설 면적 비

율(9.6%)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공개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토론회에서 사업 추진 과정을 확인·검증하고 의문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 시민단체들은 시가 제안한 공개토론회 참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공개토론회에서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인 기우식 참여자지21 사무처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 측으로부터 공개토론회 관련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그러나 시의 제안이 오면 토론회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토론회 내용에 대한 내부 조율을 거칠 것”이라며 “이미 시민단체 간 사업 계획 변경안의 부당성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3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시민단체들은 세대수 증가, 용적률 상향 등의 사업자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수익을 지나치게 배려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경찰청 등은 잇따라 성명을 통해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계획안을 대부분 수용한 시의 행태에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진기자

##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저출산 극복 기대감

### 市, 임신·출산·보육 친화도시 주력...583명 출생축하금 첫 수혜

광주시는 청년인구 유출 및 결혼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인구절벽을 체감하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이다 여성들의 일생활 균형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기준 광주시 합계 출산율은 0.91명으로 전국 평균(0.92)보다 낮다. 2017년 1.05에서 2018년 0.97, 2019년 0.91명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에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은 역점 사업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내걸고 임신·출산·보육 친화도시 조성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서비스를 시행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출산보육지원금 지급을 통해 임신·출산·보육 친화도시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17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목표로 출생축하금 지급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출생축하금 지급과 관련 광주시는

영유아 1인당 평균 양육비용은 66만원으로 정부 지원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시의 열악한 경제·고용 동향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매월 25일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은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으로 나뉜다. 지급 대상은 출생축하금은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육아수당은 1월1일 기준 24개월 이하인 아동이다.

출산축하금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수당은 24개월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20만원, 2년간 총 4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광주시가 지급한 금액은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60만원 등 출산 축하금이 전부였다.

다만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이달 중에는 출산축하금 이 첫 지급되고, 다음달에는 육아수당 대상자들이 첫 수혜를 입는다.

먼저 이달 출생축하금 대상자는 모

두 583명으로 오는 25일 첫 지급 받는다.

육아수당 수령대상자는 모두 1만5천여명으로, 오는 2월25일 첫 지급받는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까지 지급됐던 출산 축하금(10만~60만원)과 마더박스(10만원)는 출생축하금(100만원)으로 통합된다. 지난해까지 운영했던 영유아병원비(둘째 이상, 2년간 100만원)는 육아수당으로 대체돼 2020년 12월 신청자에 한해 올해 1월까지 지급한다.

곽현미 여성가족국장은 “강원도와 충남이 출생을 제고를 위해 각각 매월 30만원,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그 결과 30만원을 지원한 강원도는 2019년도 합계출산율이 전년 대비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하는 등 저출산 해결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생축하금 지급 이외에도 육아와 일·생활 균형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겨울기자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준공...블루오션 창출 기대

전남도는 17일 “광양항에 추진된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이 최근 완료돼 새로운 해양 블루오션 창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항만 건설로 유희화된 광양항의 중대 일반 부두 및 컨테이너 1단계 4번 선석에 해양관련 산업 집적 및 융복합 추진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준공됐다.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은 광양항 유류 부두를 해운 항만물류 R&D 테스트

베드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도·광역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운 항만물류와 관련된 연구개발센터, 전시관, 성능시험실, 교육 시설, 사무실 등을 구축했다.

특히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 사업으로 해운항만물류 R&D 테스트 베드와 함께 스마트자동화 항만 테스트 베드도 갖췄다. 광양항에 항만물류 R&D 분야와 융복합 가능한 테스트 베드 클러스터가 조성됨에 따라 항만물류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클러스터에 입주자 확정된 곳은 1개 기관이며 앞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강성은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준공으로 항만물류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부가가치 유발, 취업 등 경제적 효과를 유도해 광양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6일 오전 보성군 조성면 소재 청년여성농업인 사업현장인 ‘싱싱농원 딸기베이킹 체험장’을 방문, 김소영 대표로부터 딸기를 이용해 만든 케익과 타르트 등 다양한 콘텐트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김지사 “청년농업인 성공 지원 최선”

### 청년농 부부 운영 보성 싱싱농원 방문...소통 행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6일 청년농업인 부부가 운영 중인 농업 6차 산업 현장을 찾아 “청년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여 성공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김소영·정경모씨 부부가 대표로 있는 보성 싱싱농원을 찾아 딸기·토마토 등 지역 특산물로 가공·유통, 체험 등 다양한 콘텐트를 개발, 새로

운 부가가치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우수 6차 산업현장을 둘러봤다. 싱싱농원 대표 김소영·정경모씨 부부는 2010년 서울에서 보성으로 귀농했다. 2011년 전남도 지원을 받아 스마트팜을 도입, 연간 8천명 이상이 찾는 딸기 수확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김소영 대표가 개발한 딸기잼,

딸기잼 등 가공식품은 전남도 쇼플링 남도장터와 보성물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2019년 연간 4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농원으로 성장했다.

김 대표는 “젊은 청년 농부들이 농촌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예비 청년 농부들이 농사 콘텐트를 기반으로 상상력을 넓힐 수 있도록 돕고 아이디어가 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업과 농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 전남도, 지적측량 수수료 83억 감면

전남도는 17일 “지난해 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지적 재조사사업 등을 통해 지적측량 6천83건의 수수료가 83억원 감면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한 감면은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주택 완공 시 전액, 반과 시 50% 감면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25건 511필지, 1억4천만원을 감면받아 수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이 밖에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5천758건, 81억6천만원을 감면했다. 사업별로는 ▲사업 지적 재조사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62억8천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1억2천만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1억원 ▲등록전환 등 기타요인 16억6천만원 등이다. /김재정기자

## 왜? 하이롬 전기온풍기인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주)하이롬에서 제작한 **농업용 전기온풍기**로, 낮은 연료비와 높은 열효율을 통해 하우스 내부를 작물 성장에 최적의 환경으로 맞춰 다수확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닐하우스 필수품, 농업용 전기온풍기**입니다.

**난방비는 내리고, 온도는 내 맘대로 올리고!** 온도는 High, 수명은 Long / 하이~롬 전기온풍기

저렴한 유지비용

70% 이상 저렴한 난방비

편리한 사용

쉬운 세팅 이동·설치 간편

강력한 송풍력

강력한 바람 골고루 따뜻

최적 환경조성

습기 제거 탁월

사용장소		작물별 사용 표준(200평 하우스 3중 보온 기준)				
비닐하우스	축사	건설장				
딸기, 토마토, 메론, 블루베리, 포도, 가지, 고추, 피망, 한라봉, 백합과, 구아바, 호박, 부추, 깻잎, 버섯, 화훼	돼지, 염소, 곤충(귀뚜라미, 굴뚝이, 메뚜기 등), 양계장, 오리농장	꽃감, 해조류(청각, 툯, 미역 등), 고추, 건설현장	딸기, 깻잎	토마토, 호박	오이, 가지	고추
			6~8°C 유지 9KW 2대	12~14°C 유지 9KW 3대	17~20°C 유지 9KW 4대~5대	18~20°C 유지 12KW 4대
						19~22°C 유지 12~15KW 5대

\* 9KW 1대가 3~4°C 온도 상승, 위 기준은 예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직원과 상담하여 설치하여 주십시오.

저렴한 유지비용

고효율 온풍기

강력한 송풍기

**HIROM (주)하이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90  
T 1566-2042 F 062-511-8713 H 010-8612-8700

주식회사하이롬은 스마트팜 전문업체입니다. 정부 보조금 사업, 농협우자 가능

하이롬은 비닐하우스 농기계 전문회사입니다      검색창에 **하이롬 전기온풍기** 를 검색하세요!